

소가 웃는 행복한 나라



동이 트기도 전, 어둑어둑한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걱정되는 마음과 꿈에 그리던 나라로 떠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잡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오라는 말을 건네며 인사해 주었다. 12시간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네덜란드 땅을 밟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기분이 상쾌했다.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김소영
경북 상주 유명목장

국내에도 낙농 전문 교육기관 생겼으면

첫 일정은 네덜란드의 PTC+라는 낙농업 전문 실습센터였다. 세계 각국 수많은 수강생들이 매년 찾아오고 기관, 학교, 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에 가장 가까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우리에게겐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배울 점이었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PTC+같은 기관이 있다면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경험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나라에도 PTC+같은 기관이 생기기를 바라본다.

자극심으로 낙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방문한 암스테르담 근교에 위치한 농장은 4대째 운영하는 곳이었다. 농장주 알버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료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또 소가 아플 때에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소들은 드넓은 초지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급기야 소들이 웃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웠다.

알버트는 착유만 해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말한다.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극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버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농선진국가들이 모여있는 유럽 또한 앞으로의 낙농이 어렵다는 사실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독일. 세 나라를 다니면서 넓은 초지에서 소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며 풀을 뜯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누르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넓은 초지는 부러웠지만, 시설관리와 사양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 것 같아 유럽에 머무는 동안 어깨가 으쓱했다.





목장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 유익한 시간

물론 낙농선진국인 유럽의 농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았지만 낙농 1세대 부모님들과 함께여서 나에겐 더 좋은 시간이었다. 소 1마리로 시작해 어렵게 목장을 일궈낸 스토리, 1세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낙농 후계자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들을 들으며 나 또한 고민하게 되었다.

낙농후계자로서 목장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우리 목장이 가져야 할 경쟁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에게 의미가 깊다. 낙농에 무지했던 나는 배움으로써 우리낙농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고, 시야가 달라지니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연수 내내 함께 고생한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함께한 1세대 부모님들, 후계자분들과 좋은 인연 맺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